

# 올겨울 꼭 가봐야 할 여행지, 경남 ‘로봇랜드’

## 국내 최초 탑승형 자율주행로봇 등 5종 신규 콘텐츠 추가 눈썰매장, 60m 스노우 튜브 슬로프 개장



1, 2 로봇랜드 전경

### 국내 최초 로봇과 놀이 공간이 만나는 곳 ‘마산 로봇랜드’

2019년 9월 천혜의 바다 경관이 내려다보이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에 로봇을 주제로 한 체험시설 및 테마파크, 컨벤션센터, R&D 센터가 문을 열었다.

테마파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로봇을 주제로 한 5개관, 11개 콘텐츠의 공공부분 전시체험시설과 22종의 민간부분 놀이시설로 구성됐다.

민간 부분 놀이 시설 중 최고의 인기 기구는 어드벤처 구간의 ‘썬더볼트’(쾌속 열차)와 ‘스카이타워’(자이로드롭)다. 썬더볼트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기종으로, 최고 시속 90km로 360도 회전해 절정의 짜릿함을 느낄 수가 있다. 스카이타워는 65m 높이에서 구산면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다. 정상에서 단 2초 만에 시속 82km로 떨어져 온몸의 체감도가 더욱 높다. 절정의 아찔함과 쾌감을 즐기는 강심장을 갖고 있다면 썬더볼트와 스카이타워부터 찾으려 한다.

로봇랜드는 입장권과 자유이용권을 분리하고, 자유이용권도 당초 요금보다 7천원 내렸다. 자유이용권은 ▲ 어른 3만5천원 ▲ 청소년 3만1천원 ▲ 어린이 2만7천원이며, 입장권은 ▲ 어른 1만6천원 ▲ 청소년 1만3천원 ▲ 어린이 1만원이다.

로봇랜드는 새롭게 5종의 콘텐츠를 지난해 12월 1일 오픈했다. 에디,

로봇별 대모험, 에어하키 대결로봇, 해양로봇특공대 모비딕-X, 멀티미디어극장 마리오네트 로봇, 탑승형 자율주행로봇 노리원 등을 즐길 수 있다. 단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확산으로 공공관은 신규콘텐츠인 멀티미디어 마리오네트로봇이 있는 로봇판타지관과, 로봇극장, 우주항공로봇관만 운영할 예정이다.

### 눈썰매장, 60m 스노우 튜브 슬로프 개장

로봇랜드는 ‘눈꽃 세상으로의 초대’라는 이벤트를 통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2월 29일까지 10~17시에 눈썰매장과 튜브 슬로프를 운영한다. 이벤트 기간에 겨울 조경을 활용한 포토존 조성, 북극곰 퍼레이드 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. 눈썰매장은 자유이용권 입장객은 무료, 입장권 고객은 추가 요금 4천원을 내면 횟수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.

로봇랜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운영시간을 9시 50분부터 18시까지 단축 운영한다. 또 동시 입장객을 3천명으로 제한하고 전자출입 명부 작성, 방역 게이트, 열화상 카메라 운영, 놀이기구별 손소독제 비치, 매일 전체시설 방역소독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. ▼